



**8주차**

#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김 아 랍



**8주차 | 학습목표**

- 왜곡된 보도와 피해자 혐오가 많았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구체적인 경험과 감정을 통해 참사의 고통을 이해하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할 수 있다.



**8주차 | 학습목차**

<p><b>학습목차</b></p> <p><b>학습목표</b></p> <p><b>학습내용</b></p>	<p><b>01.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월호 침몰이 사회적 참사로 진행된 당시 상황</li> <li>• 부모와 희생자 자녀의 마지막 연락</li> </ul> <p><b>02. 진도의 혼란 상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사 직후의 진도, 안산의 상황과 피해자의 이야기</li> <li>• 평북항과 진도체육관에서 가족 모임이 만들어진 과정</li> </ul> <p><b>03. 유가족의 슬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은 상황과 가족들의 심정</li> <li>• 자녀 수습 과정의 슬픔</li> </ul>	<p><b>04.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법 등 진상규명 활동 과정</li> <li>• 피해자들의 노력과 활동 모습</li> </ul> <p><b>05.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족의 특별법 촉구 활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li> <li>• 세월호 참사의 피해 현황</li> </ul> <p><b>06.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향한 언론과 정치권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li> <li>• 기억과 추모의 어려움과 유가족의 삶</li> </ul>
--	--	---



**8주차 |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1차시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8주차 | 학습목표

1차시.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학습목차**

**학습목표**

- 세월호 침몰이 사회적 참사가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 참사 이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세월호 침몰이 사회적 참사로 진행된 당시 상황
- 부모와 희생자 자녀의 마지막 연락



# 세월호 침몰이 사회적 참사로 진행된 당시 상황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1차시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 4.16 세월호 사건은?

- 세월호 사건의 전개
  - 2014년 4월 15일 밤 9시 무렵 세월호 인천항에서 출발
  - 4월 6일 8시 오른쪽으로 돌면서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
  - 101분만에 뒤집히며 가라앉음



인천-제주 항로



세월호 침몰 지점



세월호 침몰 지점(확대)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1차시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 4.16 세월호 사건은?

- 세월호 침몰
  - 475명 탑승자 중 299명 사망, 5명 실종
  - 단원고 학생 250명 사망, 75명 생존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1차시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 4.16 세월호 사건은?

- 세월호 침몰에 대해 항로 급변 등 침몰원인 확인 불가
  - 당시 국가의 대응에 대한 의문
  - 침몰 당시부터 희생자 수습과정, 후속 조치 등 문제 발생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1차시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 4.16 세월호 사건은?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1차시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 안산 단원고 2학년의 수학여행

- 세월호 침몰의 전개
  - 4월 15일 수학여행 출발
  - 참사를 예견할 수 없는 배 안의 모습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1차시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 안산 단원고 2학년의 수학여행

- 세월호 침몰의 전개
  - 16일 9시가 되기 전 갑자기 배가 기울기 시작
  - 8시 52분 119 구조요청 신고
- 선내방송 시작: “가만히 있으라”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봉을 잡고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을 하시면 위험하오니 안전봉을 잡고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1차시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 안산 단원고 2학년의 수학여행

“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대피 방송, 기다리라는 방송이 나왔잖아요. 저희는 아무런 지식도 없었고, 처음에 탈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로 나가라는 교육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무원이나 선장이 저희보다 지식이 많으니까 믿어야겠다는 생각,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믿고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

승선했던 단원고 학생의 증언

[출처01] 증인신문조사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1차시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 탈출한 선장, 구조하지 않은 정부

### ■ 선장 이준석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무기징역 선고

#### · 대법원 판결 내용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

[출처02] 대법원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1차시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 탈출한 선장, 구조하지 않은 정부

### ■ 선장의 탈출

- 선장과 선원이 탈출하던 순간까지 선내에선 ‘대기하라’라는 방송 송출
- 123정이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1차시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 탈출한 선장, 구조하지 않은 정부

### ■ 세월호 내부 상황 확인 미흡

- 눈에 보이는 승객만 구조, 승객에게 내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
- 123정 10시 11분에 세월호 이탈
- 민간 어선에 의해 10시 30분까지 172명 구조 후 생존자 없음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1차시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 탈출한 선장, 구조하지 않은 정부

- 해양경찰과 해군의 대응
  - 헬기는 항공 통제만 실시
    - “너무 임무에 집착하지 말고 안전에 유의하세요”라는 지시 하달
  - 10시 39분경 현장에 진입하는 소방 헬기에게
    - “구조할 인원이 없습니다. 복귀하셔도 될 것입니다”라고 통보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1차시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 탈출한 선장, 구조하지 않은 정부

-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
  - 국가 위기 관리 기구의 역할 미흡
  - 청와대 차원에서의 종합적 지시 없음
  - 구조보다 상부 보고에 중심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1차시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 탈출한 선장, 구조하지 않은 정부

- 대통령 대응의 문제점
  -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의 보고 누락
  - 대통령, 관저에 위치
  - 오후 2시 세월호 관련 첫 회의
  - 오후 5시 이후 중앙재해대책본부 도착
- 위기 상황 중앙 컨트롤타워의 부재



## 부모와 희생자 자녀의 마지막 연락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1차시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 마지막 연락

“재강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 8시 46분에. 엄마 인터넷 검색 실시간 1위라고, 배가 사고 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 그래?” 그래서 애가 나랑 통화를 했었으니까 해상 사고에 대한 아무런 인지가 없었어요.

애는 멀쩡하게 나하고 통화를 하니깐 그냥 집에 온다는 개념을 가졌었어요. “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조금 있다 보자”고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고 9시 44분에 애가 친구 전화기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출처03] 『그날을 말하다 - 재강 엄마 양옥자』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1차시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 마지막 연락

“아빠, 아빠, 아빠, 우리 배가 기울어졌는데 우리 방 쪽에서는 바다만 보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대요. 아버지는 그 상황에서 되게 다급한 상황이면 “나와”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고 다 구명조끼 입고 이제는 해경이 와서 선생님 말 듣고 기다리는 중이라니까 나오겠지, 그래서 아빠도 “차근차근 선생님 말씀 듣고, 너무 우왕좌왕하고 막 니네들이 그러면 그 좁은 길에 나오는 게 힘드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대피해서 해경 저기 배타고 나오면 아빠한테 전화해라” 이게 이제 마지막이었대요.”

[출처04] 『그날을 말하다 - 승묵 엄마 은인숙』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1차시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 마지막 연락

“엄마 배가 좀 기울어졌는데 물이 들어오고 있어. 그런데 엄마, 가방도 저기에 있고 신발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가냐고, 그럼 그냥 오라고, 그때도 저는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엄마 지금 헬기가 와서 구조하고 있다더라고요, 재강이가.

구조하고 있다니까 저도 이제 별 생각이 없었어요. 헬기가 왔으니까 구조해서 나오나보다 그럼 신발 없으면 그냥 오라고.”

[출처03] 『그날을 말하다 - 재강 엄마 양옥자』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1차시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 마지막 연락

“경주가 마지막으로 문자 온 게, ‘엄마, 물 올라와.’ 이게, 이게 마지막 문자 온 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갔어요, 학교를.”

“나는 수학여행 가는 거 그때 들은 거예요. 유민이가 저한테 얘길 안 한 거예요.

왜 안했는 줄 아세요? 그걸 알면 내가 돈 줄까 봐. 그리고 수학여행도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모아 놓은 돈으로 갔다 오겠다고.”

[출처05] 『그날을 말하다 - 경주 엄마 유병화』 [출처06] 『그날을 말하다 - 유민 아빠 김영오』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1차시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 마무리

-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상황과 학생들

### SOURCES



[출처01]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공판기록, 제07권, 증인신문조서 (2014.7.28), 10~15쪽

[출처02] 대법원, 2015도6809,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부작위가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2016.1.18)

[출처03]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재강 엄마 양옥자>, 한울, 2019, 74-75쪽

[출처04]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승목 엄마 은인숙>, 한울, 2019, 82쪽

[출처05]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경주 엄마 유병화>, 한울, 2019, 53쪽

[출처06]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유민 아빠 김영오>, 한울, 2019, 97-98쪽



기획·조정  
이봉규·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